

진관사 출토 유물, 불교계 품으로

9월 1일 관련 유물 280점 불교중앙박물관 이운

2013년 문화재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울시에 귀속됐던 진관사 출토 유물 280점이 불교계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의에서 해당 유물의 역사적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찰 출토 문화재 소유권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진관사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과 토제 나발. 2013년 국가로 귀속됐다 2년만에 불교계로 돌아왔다.

국행 수록제 역사적 근거 보여줘
“사찰 매장문화재 소유권 논란에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

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진관사 역시 소명자료를 통해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진관사 출토유물은 7월 31일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를 거쳐 소유권 판정이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 문화재청의 진관사 소유권 판정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유물 환수는 월정사와 회암사의 출토유물 소유권 결정 사례와 같이 사찰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진관사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은 사찰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이며, 천년고찰 진관사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종단은 진관사와 함께 출토유물 280점과 국행수룩제가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진관사 출토 유물 이운을 발판삼아 1700년을 함께해온 한국 전통사찰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보존, 사지의 복원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실관리·불법유출 문화재 환수 나선다

‘불교문화재 제자리찾기’ 창립... 김시습 사리 등 환수 추진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불법 유출된 불교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수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다양한 NGO활동을 통해 자비행을 펼치는 영담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은)은 9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단체인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이미 문화재환수운동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해운 스님을 비롯해 각원, 능원, 도음, 부명, 원오, 이암, 종호 스님과 법률 전문가로 양희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재 환수 불사의 첫 시작으로 △동아대학교에 소장된 수증사 불상을 본

래의 자리인 수증사로 봉안하고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매월당 김시습의 사리를 원래의 봉안처인 부여 무량사로 돌려놓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동

영담·해운 스님 주축으로 구성
유실 목록 작성·세미나 등 계획

아래 소장 불상은 연구를 통해 수증사 불상이란 것이 밝혀졌다.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면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수증사 불상(6점)도 도난품으로 회수된 문화재이므로 반환 운동이 진행되면 자연스



동아대에 소장된 수증사 불상(사진 왼쪽)과 국립부여박물관 수증고에 있는 김시습 사리(사진 오른쪽). 부실관리 및 불법 반출 불교문화재에 환수를 위해 창립한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이들 문화재 환수 운동을 추진한다.

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해외 유실 불교문화재 목록 작성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주요 불교문화재가 유실된 국가에 방문해 불교문화재 환수 요구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4대강 사업 그 후 “잊지 말아주세요”

불시넷, 2일 내성천 등 훼손모습 주제 세미나

지울스님 ‘낙동강 7년 기록’ 발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장기간 투쟁해 온 지울스님이 수년 간 직접 찍은 사진 자료 등 토대로 내성천(영주시 중앙부)을 관류하는 낙동강 지류)살리기에 나섰다. 지울스님은 낙동강 일대 같은 장소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

지원, 이하 불시넷)는 9월 2일 서울 경지동 조계사 불교대학 2층서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는 지울스님, 박은선 공간모래 큐레이터, 리나플레이어이쓰르 등 나섰다.

지울스님은 낙동강 일대 같은 장소서 5~7년 전 찍은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

며 4대강개발로 인한 자연변모의 심각성을 토론했다. 담과 보 설치로 강 수면이 높아지자 주변 농경지 및 둔치 침수가 발생해 농민 피해, 나무 고사로 인한 수질악화 등 문제가 조래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강 본류가 깊어지면 지천이 깊어지고 소하천도 영향을 받아 지하수 체계가 크게 변한다”며 “강 인근 마을 주민들이 눈에 물을 계속대도 물이 받아지지 않고 발은 말라간다고 걱정하고 있다. 작은 섬들도 전부 말라 나비, 잠자리 등 유충도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아름 기자**

국회도 ‘답게살자’ 자성 운동 릴레이 동참

정각희 등 9월 1일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 날 아침,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각희·국회조찬기도회·가톨릭신도의원회·원정회 등 국회종교모임과 ‘답게살겠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국회의장의 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자승, KCRP)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제도적 결함 혹은 상대 정당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반성한다”며 답게살자운동을 계기로 이날 개최하는 정기국회서부터 새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서원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 △입법부 구성 원으로서 사회 갈등을 조정해 상생, 상화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것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충직한 봉사자가 될 것 △국익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될 것 등 결의했다.

총무위원장 자승 스님을 대독해 축하를 전한 정문 스님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성찰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답게 살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은 ‘인간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에 이바지하겠다는 자기책신 각오를 담아 KCRP가 추진 중인 범국민적 자성운동이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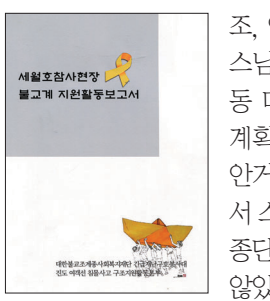


정각희·국회조찬기도회·가톨릭신도의원회·원정회 등 국회종교모임과 ‘답게살겠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답게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500일, 함께 한 불교계 ‘발자취’

조계종 긴급재난봉사대, ‘세월호지원활동보고서’ 발간

8월 28일 기점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500일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후 진도 팽목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이어졌다. 그 중심엔 불교계 지원활동이 있었다. 조계종은 사건 직후 조계종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진도 팽목항에 파견, 구조지원활동본부를 구성해 실종자 수색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220여 일 간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이제 구조지원본부는 “중단 기확실과 사회부 등 중심으로 재난 유형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재난대응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위 “세월호 진상 규명해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 이하 노동위는) 8월 27일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진실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노동위는 “세월호 사고 원인, 구조 활동 문제와 책임 등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직 수습되지 못한 9구 시신 수습을 위해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아름 기자**

희망 2015

선운문화제

고창 선운사

2015년 9월 19일(토)

행사내용

- 미륵대제**
일시 9월 19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도술산 도술암
내용 점안식 및 생전예수재
- 경관이운식**
일시 9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고창 선운사 박물관~대웅전 앞
내용 「석씨원류」 목판을 이운하는 행사
- 산사음악회**
일시 9월 19일(토) 오후 7시
장소 고창 선운사 대웅전 앞
출연진 가수 조항조, 김보경, 테너 김성록, 로맨틱 앙상블, 지미브라더스 등 출연

보은염 이운행사

- 일시 9월 19일 오후 5시
장소 생태숲~선운사 대웅전
내용 1500년 이어진 은해사는 보은염 행사

꽃무릇 시화전

- 일시 9월 19일~10월 3일
장소 천왕문 앞
내용 꽃무릇과 함께하는 시화전시

고창 주민장터

- 일시 9월 19일~20일
장소 천왕문 앞
내용 고창 지역 특산물 판매 및 보은염 판매

출연진

가수 조항조

가수 김보경

지미브라더스

테너 김성록

로맨틱앙상블

음악감독 김이연

석상암 미술관 개관 특별전

- 일시 9월 19일~
장소 도술산 석상암
내용 선사화 특별전시

주최 **禪 禪 禪 禪 禪**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전화 063-561-1422 홈페이지 http://www.seonunsa.org